

# 이탈리아의 육아정책

도남희 연구위원

이탈리아의 육아정책은 가족과 문화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저출산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최근 육아정책의 변혁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5년 통과된 새로운 교육 체계 개혁안(법 107)은 분리된 체제를 통합하기 위해 교육부의 소관 하에 출생부터 6세까지 하나의 ISCED 수준을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0-6세 연령 집단에 대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CED(0-3세 아동을 위한 서비스)에서 수혜 대상, 직원 비율, 직원 자격, 국가적 교육과정, 규제와 질 감시 모니터링 정책 등 구조적 변화를 계획하고 있어 추후 변화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 1. 들어가는 말

이탈리아는 예술의 본고장, 세계문화의 수도, 열린 박물관 등 문화유산 측면에서 세계적인 국가로서 이를 아직도 잘 보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적 유산을 근간으로 지금도 디자인과 패션 등의 창의적인 분야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기반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양육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특히 가족을 통해 보육을 지원받는 경향이 많았다. 이탈리아의 보육 정책은 남성부양자 모델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고 3세 이후의 공보육이 보편화되었다는 점 등은 우리나라의 양상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최

근에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낮은 출산율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보육정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가족과 문화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저출산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육아정책을 돌아보면서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 2. 육아관련 제도 변화

### 가. ECEC 시스템

이탈리아의 유아교육·보육은 19세기 개인 자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세계육아정책동향 시리즈 21 「이탈리아의 육아정책(도남희, 2017)」의 내용을 발췌, 수정 및 정리한 것임.

본가와 종교 기관들이 가난한 근로 계층과 극빈자들을 위해 설립하였던 자선 보호시설이 추후 의료 관료들과 공공 기금에 의해 지원되며 발전하였다. 이탈리아에서 의무적으로 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는 6세로, 3-6세를 위한 교육체계와 3세 이하 아동을 위한 복지체계의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탈리아의 이원화된 시스템에 의해 아동 연령에 따라 기관 및 담당국이 구분되어 있는데, 3-6세 아동을 위한 'Scuola dell'infanzia'를 관할하는 교육부와 영유아를 위한 'Nido'를 담당하는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져 있다

(표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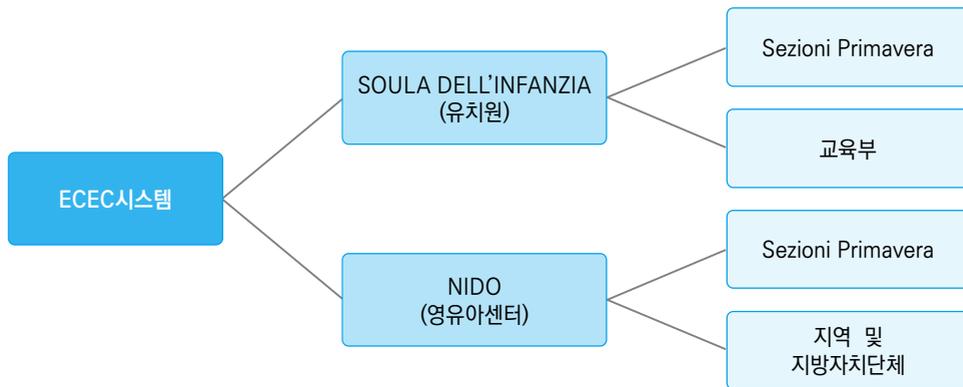
2015년 7월 교육 체계 개혁안(법 107)은 통치체제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법안으로, 교육부는 통합된 0-6세 체제에 대한 책임을 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현재는 전이 시기이므로 기존의 시스템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0세부터 3세까지의 아동을 위한 센터 기반의 서비스는 Nido(영유아센터, 유아원, 기존의 nido d'infanzia) 및 통합적 서비스의 기타 유형(가정 기반의 일부 정기적 보육 포함)이며, 노동 및 사회정책/복지부의 책임 하에 있다. 3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을 위한 센터 기반의 서비스

〈표 1〉 0-3세와 3-6세를 위한 서비스

구분	0-3세		3-6세
서비스 유형	Nido(asili nido)	Sezioni-primavera	Scuola dell'infanzia
서비스 대상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영유아 센터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2-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서비스(Spring sections)	3-6세 아동을 위한 유치원
서비스 시간	개인 요구에 따른 상근직 서비스	시간제 혹은 가정 기반의 서비스	권리로서의 유아 교육
서비스 관리체계	지침이 없거나 지역적 지침	지방자치단체, 협력기관, 기타	국가적 지침
서비스 참여율	전 국민의 19% 참여	기타 0-3세 서비스(Sezioni Primavera 포함): 2-3% 참여	전 국민의 95% 이상 참여

자료: Mantovani, S.(2016). Overview of ECED provision in Italy: Diversity and new challenges. 발표 자료.



[그림 1] 이탈리아의 ECEC 시스템

자료: Mantovani, S.(2016). Overview of ECED provision in Italy: Diversity and new challenges. 발표자료.

스는 Scuola dell'infanzia(유치원)로, 주 교육 체계의 첫 단계이나 의무사항은 아니며 교육부에 의해 식사와 교통을 제외한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주립 유치원은 일반적으로 3-14세 아동을 위한 교육과정이 있는 종합적인 기관에서 수행된다. 지방자치제의 예비초등학교(pre-primary school)는 널리 퍼져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0-6세까지의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Nido와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이탈리아의 ECEC는 교육부와 노동 및 사회 정책/복지부 및 기타 부서에 걸쳐 공유된 국가 수준의 다수준 통치모델에 의해 수행된다. 보건부는 ECED<sup>1)</sup>와 PPE<sup>2)</sup>를 아우르며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기간별 위생 통제, 모든 아동의 장애 진단과 인증, Nido에 있는 아동의 영양 조절 및 소아과 진찰을 담당한다. 재무부는 2015년 통과된 재정법에 따라 초기 아동을 위한 기금 할당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

2015년 7월 통과된 교육 체계에 대한 최근

개혁안(법 107)은 분리된 체계를 통합하기 위해 교육부의 소관 하에 출생부터 6세까지 하나의 ISCED<sup>3)</sup> 수준 0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담고 있다. 동법에 의하면, 향후 0-6세 연령 집단에 대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조적 변화가 계획되어 있다. 이에 따라 특히 ECED에서 수혜 대상, 직원 비율, 직원 자격, 국가적 교육 과정, 규제와 질 감시 모니터링 정책 등 여러 변화를 구상 중에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 나. 공적 지출

이탈리아의 초기 아동기 교육·보육에 대한 공적 비용을 보면, 전체 GDP비용 중 공적 비용은 0.5%이며 이는 유럽 전체 평균보다는 낮지만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높은 편이다(표 3 참조). 이 중에서 보육비용은 0.1%이고 초등 전 비용이 0.4%로 나타나 보육보다는 대부분 초등 전

<표 2> 주요 정책 변화

정책 변화 내용	ECED	PPE
ECE 지출	●	●
ECE 수혜 대상	+	○
ECE 아동: 직원 비율	+	●
ECE 직원 자격	+	●
국가적 ECE 교육과정	+	●
ECE 규제와 질 감시 모니터링	+	●
아동 평가	○	○
기타	+	+

주: 약호 설명(○ 지난 5년간 변화가 없었으며, 현재도 없음, ● 지난 5년간 변화함, + 향후 5년 이내 변화를 계획함)

자료: Bertram, T., & Pascal, C.(2016). Early childhood policies and systems in eight countries: Findings from IEA's early education study.(<http://eces.iea.nl>, 2017년 10월 2일 인출)

1) ECED(Early Child Education Development): 0-3세 아동을 위한 서비스

2) PPE(Pre-Primary Education): 초등학교 전 아동을 위한 서비스

3) ISCED(The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1970년 초, UNESCO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각 국가별 및 국제적으로 교육 통계를 모으고 제시하기에 적합함.

〈표 3〉 GDP대비 초기 아동기 교육 및 보육에 대한 공공 지출(2013)

단위: %

	합계	보육	초등 전
EU 평균	0.7	-	-
이탈리아	0.5	0.1	0.4
한국	0.9	0.6	0.3
일본	0.4	0.3	0.1
미국	0.3	0.1	0.3

자료: OECD(2013). Family database. Data for Chart PF3.1.A. Public spending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인출일 2017년 9월 28일).

〈표 4〉 영유아기 아동 1인당 사회적 지출(2013)

단위: 달러

	현금 및 세제 혜택	보육	기타 유사 혜택	교육	합계
이탈리아	22,250	20,560	1,500	690	44,990
일본	14,860	15,620	1,330	0	31,810
한국	9,320	29,990	720	50	40,080
미국	12,640	12,550	2,790	550	28,520

자료: OECD(2013). Family database. Data for Chart PF1.6.C. Cash benefits and tax breaks and childcare are important in per capita social expenditure on children in early childhood(0-5 years).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인출일 2017년 9월 28일).

비용에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영유아기의 아동 1인당 사회적 지출의 현금 혜택과 세제 혜택을 살펴본 결과, 2013년 기준 1인당 44,990달러가 지출되었다. 그 중 현금 및 세제 혜택이 가장 많은 22,250달러, 보육은 20,560달러, 그 외에 다른 혜택과 교육에 지출되었다.

## 다. 질 관리 시스템

OECD 국가들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질 모니터링은 서비스 질, 교직원 질, 아동발달 및 성과, 커리큘럼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탈리아는 아직 유아교육·보육(ECEC) 부문에서 국가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으며, 국가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통합

ECEC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서비스와 교직원의 질은 감독(supervision)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감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며 주로 사례별 기준에 따라 공공 및 민간 유치원에서 수행된다. 이는 부모 설문조사, 내부 문서 분석, 관찰, 인터뷰, 직원 설문조사, 자체 평가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부모 설문조사를 통해 자율적인 학교 서비스 품질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15년에는 유치원 자체 평가 보고서 형식을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서비스 질 모니터링은 주로 유아의 보육비, 공간 요구사항, 건강 및 안전 규정 등과 같은 이탈리아 보육 시설의 규제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직원 자격, 놀이 및 학습 교재, 직원의 계획 수립, 근무 조건, 교육 조건 및 교육 과정의 커리큘럼 구현 등을 점검

한다(표 5 참조).

교직원 질 관리의 초점은 직원 자격 준수를 비롯하여, 교직원들의 학부모와의 소통과 교육 과정의 원활한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직원 평가는 종종 자기반성(self-reflective) 보고서, 체크 리스트 및 자기 신고서를 사용한다. 서비스와 직원의 질 모니터링은 내부와 외부에서 진행되며, 외적으로는 검사와 조사 등이 있

으나 내적으로는 자체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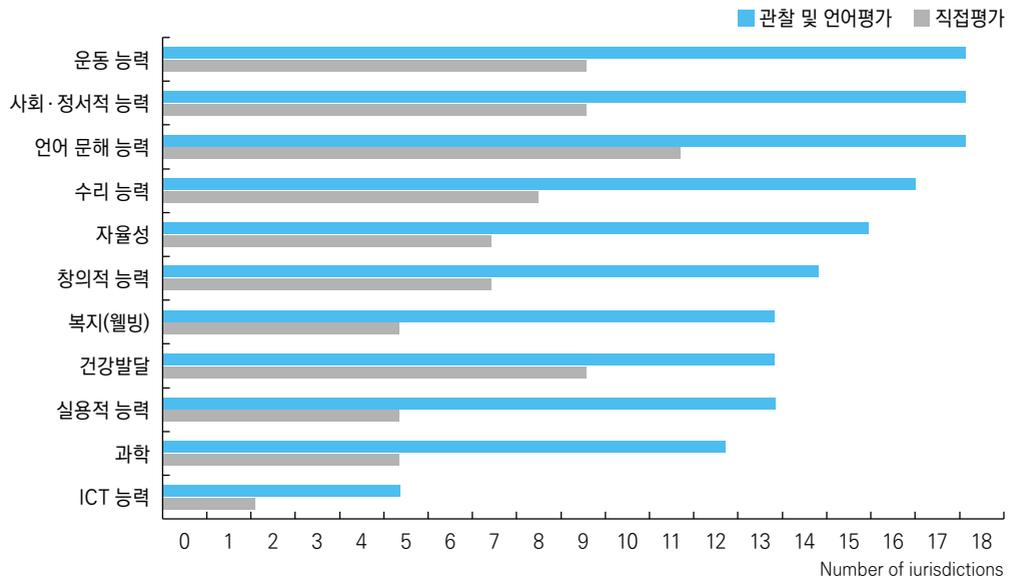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유아들의 발달과 유치원에서의 성장과정은 직접 평가와 비공식적인 관찰과 일상적이고 비조직적일 수 있는 구술평가를 통해 진행된다(그림 2 참조). 평가는 운동, 사회·정서, 언어와 문해 능력, 수와 창의성 등의 다양한 영역에 의해 평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모니터링에는 중앙 집중화된 국가데이터가 존재

〈표 5〉 서비스 질 모니터링

	교사-아동 비율	실내/실외 공간	건강 및 위생 규제	안전 규제	사용하는 교육 및 놀이도구	최소 직원 자격	일/직원 계획	근무환경	교육과정 실행	인력관리	재원관리
ECED	○	○	○	○							
PPE	○	○	○	○	○	○	○	○	○		

주: ECED는 보육시설 중심의 0-3세, PPE는 유치원 중심의 3-5세 대상임.

자료: OECD(2013). Online Survey on Monitoring Quality in Early Learning and Development, Network on ECEC. OECD, Paris: OECD(2015). Starting Strong IV: Monitoring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OECD Publishing, Paris, Table 3.3 (<http://dx.doi.org/10.1787/888933243065>) and Table 4.2(<http://dx.doi.org/10.1787/888933243213>). (인출일 2017년 10월 2일)



[그림 2] 모니터링 되는 초기 아동 발달 영역별 모니터링 방법

자료: OECD(2013). Online Survey on Monitoring Quality in Early Learning and Development, OECD Network on ECEC. Table A5.1, OECD, Paris: OECD(2015). Starting Strong IV: Monitoring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Chart 5.3,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888933243423>, 인출일 2017년 10월 2일)

하지 않으며, 예비 유아교육에서는 국가적인 평가가 행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질 관리의 주요 지표로 볼 수 있는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은 0-3세 영아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1:7이며, 2-3세의 예비 유치원은 1:15, 유치원은 1:25로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표 6 참조). 그러나 3세 미만을 위한 환경 집단 규모는 집단보다는 환경의 규모에 의해 결정되며, 교사와 아동 비율은 속한 환경의 유형 분류 체계와 교사의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예비초등학교 환경에서는 최소 18개의 교실과 최대 26명의 아동, 그리고 지역적으로 결정된 예비초등학교(PPE) 또는 유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한다. 집단 규모와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변화될 수 있으며, 시스템 개혁 직후부터 첫 2년까지는 특히 더 변화될 수 있다.

이상을 비추어 볼 때, 이탈리아는 질 평가에 대한 몇 가지 향후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아직 ISCED 0을 기준으로 한 국가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으며 이탈리아 전역의 모니터링 체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훈련이 제한되어 있으며, 현장 실습 또는 현장 연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유아들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은 ECEC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나, 그러한 서비스의 질 향상이 이탈리아에서 관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은 2015년 통과된 교육 체제 개혁안(법 107)의 정착에 따라 추후 변화를 살

펴보아야 할 것이다.

### 3. 육아지원 서비스 현황

#### 가. 육아지원 시설 현황

이탈리아의 기관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는 3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ECED)와 3세 이상 아동이 초등학교를 가기 전까지를 지원하는 예비초등학교 서비스(PPE) 또는 유치원으로 분명히 구분된다.

3세 미만의 아동을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영유아센터) 또는 Nido d'infanzia 및 놀이 공간, 부모와 아동 집단, 가정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Servizi integrativi가 있다. 3-6세 아동의 경우, 유치원(유아학교, preschools) 또는 Scuola dell'infanzia에서 유아교육을 제공한다. 이들 기관은 종일제와 반일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떤 기관은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고 어떤 기관은 사적 기금과 혼합된 자금으로 지원된다. 자금은 공급자 쪽에서는 자원 및 자본 보조금을 통해, 수요자 쪽에서는 세금 공제, 바우처와 수수료 인하(ECE 한정) 등의 지원을 통해 조달된다.

〈표 6〉 교사-아동 비율

단위: 명

Nido (0-3세)	평균 1:7(지역적 기준)
Scuola dell'infanzia (3-6세)	1:25
Sezioni Primavera (2-3세)	1:15

자료: Mantovani, S. (2016). Overview of ECEC provision in Italy: Diversity and new challenges. 발표자료.

## 나.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이탈리아의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 이용 아동 비율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여 3세 이하의 전체 아동의 24.2%, 3세에서 5세까지는 95.1%가 등록된 상태이다(표 7 참조).

유아의 ECEC 기관 이용률을 보면 ISCED 0 수준에서 3세는 92.3%, 4세는 96.2%, 5세는 88.8%, 6세는 2.3%로 나타났다(표 8 참조). 이는 교직원 자격이 거의 ISCED 0수준임을 뜻한다. 그러나 5세부터 낮은 비율이지만 ISCED 1 수준의 교직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6세 이후는 ISCED 1수준이 대부분이다.

## 다. 교사자격과 관리

교사자격은 대체적으로 기관 유형에 따라 다

르며 행정체계의 형태(분리, 통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탈리아는 분리형 시스템이므로 취업 보장에 대한 법적 권리도 높은 연령의 유아에게만 적용된다. 또한 기관유형에 따라 교원의 명칭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보육시설(daycare center)의 어린 유아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교사(educator)라고 명명하고 교육시설(pre-primary setting)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교사(teacher)라고 한다. 그러나 유치원 및 학령 전 교사(pre school/pre-primary teacher)의 자격요건이 보육시설 교사(educator)보다 높다.

영유아 대상의 교사 혹은 양육자 자격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따라 구분된다(표 9 참조). Scuola dell'infanzia(3-6세)는 2012년부터 초등 및 유아 학교를 위한 대학 5년 과정이 의무적이다. Nido d'infanzia(0-3세)는 사회-교육적 커리큘럼을 지닌 중등학교 과정이 필수

〈표 7〉 0-2세 참석율과 3-5세 등록률(2014)

단위: %

구분	0-2세	3-5세
이탈리아	24.2	95.1
스웨덴	46.9	94.3
한국	35.7	92.2
일본	30.6	91.0
유로존 평균	37.2	85.7
EU 평균	36.5	85.0
OECD-34 평균	38.1(23)	83.8
미국	-	66.8

자료: OECD(2014). Family database. Chart PF3.2.E. Enrolment rates for 3-to-5-year olds in pre-primary education school, 2014 or latest available과 participation rates in formal childcare and pre-school services, 0-to-2-year-olds, 1995-2015를 재구성함.

〈표 8〉 기관 이용률

단위: %

	3세	4세	5세	6세	7세
ISCED 0	92.3	96.2	88.8	2.3	(-)
ISCED 1	(-)	(-)	8.5	96.2	98.4

자료: European commission, EACEA, Eurodyce, Eurostat(2014). Key data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Europe, Eurydice and Eurostat report, p.174, (<http://eacea.ec.europa.eu/education/eurydice/>, 인출일 2017년 10월 2일)

적이며, 교육학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으나 필수는 아니다. 전문적인 발달 서비스에서는 연 40-50시간과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에서의 팀워크가 요구된다. 이를 볼 때 3-6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Scuola dell'infanzia 교사 자격이 가장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교사양성 교육제도는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는 교원 종류에 따라 교사자격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탈리아에서는 유치원 교사, 보육교직원 및 가정보육시설 교직원 등의 교원에게 별도의 자격증 갱신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교원능력개발(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은 낮은 연령의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선택사항인데 원래 연령이 높은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의 경우는 의무사항이다.

2015년 7월 새로운 개혁안은 주립 학교의 유치원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수진의 의무적인 훈련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CPD는 모든 다른

직원과 지도자들에게는 선택이다. 직원과 지도자들의 자격, 보수 및 훈련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논의 중에 있는 새로운 국가적 계약과 0-6세 시스템 통합의 일부를 예상하는 법안의 주체인 새로운 2015년 교육체제 개혁이 진행되면서 정리될 것이다.

## 4. 일·가정 양립 정책

### 가. 출산휴가

이탈리아의 출산휴가를 살펴보면, 5개월의 모성휴가가 있는 반면(산전 2개월과 산후 3개월 사용 원칙, 건강한 임신부의 경우는 산전 1개월과 산후 4개월로 사용 가능하는 등 임신부의 건강 상태에 따라 탄력적 활용 가능, 80% 소득보전), 별도의 부성휴가는 없다(표 10 참조). 모성휴가 사용 시 기간에 관계없이 원칙으로의 복귀가 보장된다. 소득보전은 전국사회보장기관에 등록되

〈표 9〉 교사 혹은 양육자 자격 요건

서비스 유형	자격 요건
Scuola dell'infanzia (3-6세)	대학 5년 과정 의무
Nido d'infanzia (0-3세)	사회-교육적 커리큘럼을 지닌 중등학교 과정 필수
전문적인 발달 서비스	연 40-50시간 +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에서의 팀워크

자료: Mantovani, S. (2016). Overview of ECEC provision in Italy: Diversity and new challenges. 발표자료.

〈표 10〉 유급 출산 휴가(2016)

국가	기간(주)	월급 지급률(%)
이탈리아	21.7	80.0
EU 평균	21.8	-
OECD 평균	17.7	-
일본	14.0	67.0
한국	12.9	79.5
스웨덴	12.9	77.6
미국	0.0	0.0

자료: OECD(2016). Family Database. Chart PF2.1.A. Paid maternity leave, 2016.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인출일 2017년 9월 28일).

어 고용 중인 어머니의 지적이 요구되고 전일제 근무이든 시간제 근무이든 관계없이 적용된다.

부성휴가는 따로 없지만 아버지와 입양 부모가 모성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어머니 쪽의 심각한 질병, 죽음, 양육 포기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사용하지 않은 모성휴가를 아버지가 사용 가능하며, 또한 입양의 경우 어머니와 싱글아버지는 아이가 6세가 되기 이전까지는 모성휴가 3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

## 나. 육아휴직

육아휴직에 있어서는 각자 6개월의 부모휴가(아이 1명 당 최고 11개월의 범위 내에서, 6개

월에 대해서는 30% 소득보전)가 보장된다. 부모휴가는 양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거나 각자 사용 가능하며, 상호 양도가 불가하다. 자영업 부모도 부모휴가 사용이 가능하지만 단지 3개월만 보장하며 이 역시도 아이의 첫 1년 동안 사용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존재한다.

## 다. 유연근무제

이탈리아의 유연근무제는 휴가시간(전일 또는 반일)을 누적하고 일일 근무의 시작과 끝을 바꿀 수 있음(탄력근무제), 휴가시간(전일 또는 반일)을 누적할 수 있으나 일일 근무의 시작과 끝을 변경할 수 없음(시간 선택제), 일일 근무의 시

〈표 11〉 유급 육아 및 가정 양육 휴가(2016)

	기간(주)	월급 지급률(%)
한국	52.0	28.5
일본	44.0	59.9
EU 평균	43.8	-
스웨덴	42.9	57.7
OECD 평균	37.5	-
이탈리아	26.0	30.0
미국	0.0	0.0

자료: OECD(2016). Family Database. Chart PF2.1.B. Paid parental and home care leave available to mothers.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인출일 2017년 9월 28일).

〈표 12〉 유연근무제별 이용률

단위: %

구분	탄력근무제	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OECD 평균	53.4	18.5	14.8
유로존 평균	50.5	17.5	16.4
EU 평균	49.1	19.2	15.1
이탈리아	40.0	11.5	25.8

- 주: 1) 탄력근무제: 휴가시간 누적 가능, 근무 시작과 끝 조정 가능  
 2) 시간선택제: 휴가시간 누적 가능, 근무 시작과 끝 조정 불가  
 3) 시차출퇴근제: 휴가시간 누적 불가, 근무 시작과 끝 조정 가능

자료: OECD(2013). Family Database. Data for LMF2.4.A. Incidence of employer-provided flexible working time arrangements.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인출일 2017년 9월 28일).

작과 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나 휴가시간을 누적할 수 없음(시차출퇴근제)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전반적으로 이탈리아의 탄력근무제와 시간선택제 이용률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낮다(표 12 참조). 한편, 시차출퇴근제의 이용률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5. 맺음말

앞서 논의한 이탈리아의 육아지원 제도 및 일·가정양립 정책 등을 중심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이탈리아는 가족 중심적 국가로서 전통적으로 가족 또는 대가족이 국가의 도움 없이 아동 보호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며 전통적 성역할에 의존해 오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1990년대 중반에도 대가족이라는 전통적인 가족 패턴이 다른 EU 국가들에 비해 많은 편이어서 영아의 보육은 가정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추세임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무상보육으로 인해 많은 영아들이 기관에 맡겨지고 있는데, 영아 발달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이탈리아의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우리와 같은 가족을 소중히 하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때 영아보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과 지원의 다양성 등이 요구된다.

둘째, 최근 이탈리아는 교육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이다. 가족 중심적 국가로서 보육보다는 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출이 높은 편인

데, 주로 초등 전 교육에 많이 투자하고 있었다. 이는 주로 영·유아 시기는 가족이 중심이 되어 보살피고 초등 전 시기인 유치원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한다고 볼 때, 초기 교육에의 투자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초기 교육에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인생 초기의 사회적 투자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셋째, 이탈리아는 전반적인 질 관리 모니터링은 약하지만, 교사의 질 관리 체계는 잘 구성되어 있다. 교사의 질 관리의 초점은 교직원 자격을 준수할 뿐 아니라 학부모 간의 소통과 교육과정의 원활한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0-6세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성과를 통해 향후 보육과 교육의 서비스 향상을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보육과 교육의 격차해소에 주력하고 있지만, 교직원 자격의 향상과 학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이탈리아의 일·가정 양립 정책은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할 때 더 나아 보이지는 않지만, 이용 가능한 제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자영업 부모의 출산휴가와 입양모와 싱글 아버지의 휴가 사용을 제안하고 있는 점은 취약계층에 대한 휴가 제도를 제공하여 사각지대를 좁히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우리의 휴가제도가 북유럽 국가의 제도를 압도하는 만큼 매우 성장한 시점에서 이제는 휴가제도의 사각지대를 좁혀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를 돌보기 위한 필요한 시간을 제공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